

임을 위한 행진곡

다모양 함께부르기



사 랑 도 명 - 예 도 이 름 도 남 김 없 이



한 평 생 나 가 자 던 뜨 거 운 맹 세



동 지 는 간 데 없 고 깃 발 만 나 부 껴



새 날 이 올 때 까 지 흔 들 리 지 말 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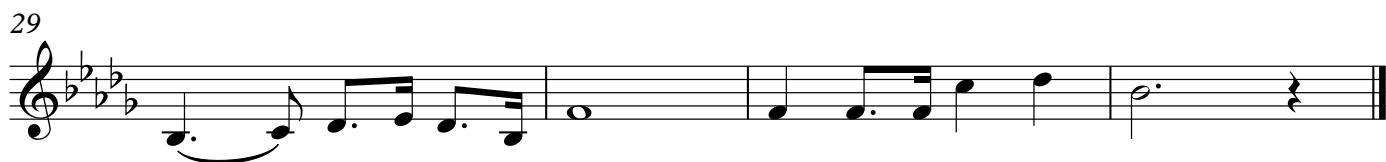
세 월 은 흘 러 가 도 산 천 은 안 다



깨 어 나 서 외 치 는 뜨 거 운 함 성



앞 서 서 나 가 니 산 자 여 따 르 라



앞 서 서 나 가 니 산 자 여 따 르 라